

강 승 희 교수지도
석사 학위 청구논문

옷의 부분적 이미지를 통한 기억에 관한 연구
- 본인작품 MEMORY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김 희 정

옷의 부분적 이미지를 통한 기억에 관한 연구

- 본인작품 MEMORY를 중심으로 -

강 승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김 희 정

인 준 서

김희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2003년 11월에 있었던 석사 학위 청구전 [memory]에 발표된 작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내용적(内容的) 조형적(造形的) 측면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이미지와 만나게 된다. 산과 들 바다와 호수 등 자연의 무수한 이미지들과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접하게 되며, 개인의 경험과 의식, 환경적 요소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것으로 형상화(形象化)된다. 이렇게 형상화된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심상(心象)의 기억과 추억이라는 서로 다른 감정이 더해져 이미지의 의미와 감흥은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는 것이다.

본인은 옷의 이미지를 과거 기억의 매개체로 보고, 작품 주제로 선택하였으며, 조형적 측면에서는 과거 연상 작용의 일환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인식되어진 옷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흔적들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고자 여러 가지 판화기법을 모색하였고 그 중에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한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아 작품의 기법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 방식은 옷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옷

이 갖고 있는 특이한 재질감과 형태의 변형을 통해 판화만이 가질 수 있는 매체성과 재질감에 흥미를 갖고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소재의 근거와 의미를 확고히 하고,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 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작품이 보여지기 보다는 공감을 통해 나의 감성을 함께하고자 하며, 이제까지의 본인 작품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작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기억의 이미지 재현	3
1) 옷을 통한 소재 선택의 동기	3
2) 소재의 의미	5
3) 옷의 매체로서의 효과	7
2. 표현내용	9
1) 옷의 부분적인 형태의 의미	9
2) 색조(色調)와 바탕재의 효과	11
3)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14
3. 작품설명	17
III.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memory 4.23. 2003.” (160×80cm), collagraph, 2003.	16
<작품2>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2003.	20
<작품3>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2003.	20
<작품4>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2003.	21
<작품5> “memory 2003.” (20×20cm×49점), collagraph, 2003.	23
<작품6> “memory 5.30. 2003.” (160×80cm), collagraph, 2003.	25
<작품7> “memory 7.30. 2003.” (80×80cm), collagraph, 2003.	27
<작품8> “memory 8.8. 2003.” (20×20cm), collagraph, 2003.	29
<작품9> “memory 7.14. 2003.” (50×70cm), collagraph, 2003.	30
<작품10> “memory 10.09. 2003.” (30×40cm), collagraph, 2003.	32
<작품11> “memory 2003.”, collagraph,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게 된다. 때문에 개인마다 간직하고 있는 생각과 경험은 각기 다를 것이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이 가지는 이야기들과 살아온 흔적은 서로 다른 많은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예술가에게 있어 새로운 경험과 많은 기억은 자신의 작품제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억을 존중해야 하며 그 기억의 의미를 항상 새롭게 정리하고 활용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자신의 기억을 불러 오는 요소들로 흔히 자신의 일기장이나 사진첩, 오래된 장난감,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본인은 과거로 통하는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과거에 입었던 옷을 소재로 선택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옷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특별히 각인되어진 이미지이고, 과거의 시각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재이다.

본인은 옷이라는 소재를 작품 이미지로 표현함에 있어서 단순히 전체적인 형상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특별한 기억으로 인식 되어진 부분만을 선택하여 작품에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재창조 되어진 형태의 작품은 본인의 옛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는 사

람들로 하여금 옷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하여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써 작용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옷이라는 소재가 본인에게 특별한 이미지로 각인되어진 동기와 소재가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을 통해 연상되어지는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거 경험의 연상 매체로써 작품에 보여지는 효과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 내용에 있어서 색의 명도 대비와 바탕재로 쓰인 반투명 비닐에 대해 이야기 하고, 표현 기법으로 쓰인 콜라그래프(collagraph)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미지는 기호적이고 각인되어진 형상으로서 옷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작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작품 속에 표현된 옷의 이미지가 지닌 기억의 작품내용을 정립하고, 판화가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여 앞으로 창작 활동 방향에 기초가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본 론

1. 기억(記憶)의 이미지 재현

1) 옷을 통한 소재 선택의 동기

과거는 흔적이나 표시, 혹은 기억들이 남긴 것이고 그 기록된 이야기들의 총체적인 의식이다. 과거로부터 남겨진 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기억이다. 이렇게 생애의 특이한 실존적 사건과 과거를 회상케 해주는 기억을 베르그송은 정신적 기억의 한 부분이라 설명하고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기억이란 시간에 의해 남겨진 과거 산물의 총체(總體)라고 할 수 있으며, 기록들과 흔적들의 저장소, 혹은 보관소이다. 2) 동시에 기억은 인간의 여러 정신활동 중에서 기록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프로이드(Freud, Sigmund, 1856~1939)에 의하면 기억의 행위는 자아(自我)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의 하나이며 '창조적 상기(想起) 행

1) 김형효, 『베르그송 철학』, (서울: 민음사, 1991) p.38

2) 메이어 호프, 『문학과 시간의 만남』, (서울: 자유사상사, 1995) p.39

위'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³⁾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과거의 기억들은 개인의 문화와 환경, 각종 매체 그리고 생활 속의 이미지 등 다양한 촉매체로 인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예술가들은 수면 위로 떠오른 이 기억의 이미지들을 필요에 의해 변형시키고 구조화한다. 그리하여 그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물이나 외형적 형태의 실제적 기억만을 뜻하지 않으며, 적어도 기억은 이미지, 개념, 상징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로이드는 과거의 잃어버린 세계로의 회귀를 인간은 열망하고, 또 실제로 꿈과 여러 경로를 통해 회귀하기 때문에 예술은 그것에 의하여 과거의 체험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⁴⁾ 여기서 통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선택한 작품의 모티브이자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 이미지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며 이것을 표현하고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하다.

이렇듯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 그리고 이미지 등을 통해 수많은 방법으로 과거 기억으로 통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미지들과 매체들 중에서 옷들을 통해 과거로의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표현 매체로 선택하여, 아련한 유년 시절의 기억과 가슴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추억들을 꺼내보고자 한다.

3) 켈빈 S.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 안귀여루역, (서울:범우사 1996) p.253

4) 잭스펙터, 『프로이드 예술미학』, 신문수역, (서울:폴빛 1981) p.118

2) 소재선택의 의미

본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 아련한 기억들을 어느 햇살 따스한 날 서랍 속 깊숙이 있는 옷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회상 하곤 한다. 어느 날 무심코 열어본 서랍장에서 과거에 입었던 옷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삭막하고 바쁜 도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이것들은, 본인의 과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랍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랍 한 칸에 구겨져 있는 주황색 티셔츠를 보면서 일본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게 되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낯선 곳을 혼자서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던 여행의 일들을 여기저기 뜯어진 실밥들과 늘어진 목둘레 등과 같은 옷의 부분 부분들에서 과거 경험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옷에서는 여기저기 수채화 물감의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 이것들은 현재 시간을 뒤로 돌려 그 옷을 입고 있던 과거의 시간 속으로 본인을 데려갔고 어느덧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때로 돌아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 입었던 옷들은 여기저기 뜯어진 실밥과 닳아진 소매 끝, 더럽혀진 바지 끝, 얼룩진 흔적 등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일들을 고스라니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품에서 보여 지는 옷이라는 소재는 '장소 기억(記憶)'을 일으켜 그 대상물에 관한 기억을 환기시킬 뿐 아니라,⁵⁾ 대상물을 사용하

5) 장소기억 <place memory>은 어떤 것을 기억함에 있어 사물을 주위의 배경과 관련시키거나

던 시절과 관련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사물 안에 가하는 자기의 경험이나 추억이 환상을 가능하게 한다.’⁶⁾는 점에서 옷이라는 소재는 추억이나 경험을 연상시키는 상징물로 사용되었고, 상상력과 옷에 대한 경험적 기억을 유발하는 도구로써 작품에 표현되어 진다.

작업에 사용된 옷의 소재는 일상에서 우연히 본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재료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같은 경험과 같은 기억일지라도 느끼고 판단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견된 소재의 부분들은 본인을 과거로 데려가는 기억의 통로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각기 다른 옷마다 가지고 있는 기억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재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랍장에서 보여진 어릴 적 옷들과 구멍 난 속옷, 여기저기 묻어있는 얼룩 등과 같은 옷의 부분들은 우연적으로 발견된 것들이지만 본인에게 알 수 없는 무언(無言)의 질문이 되었고, 사물들이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때로 과거에 경험했던 구체적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본인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일깨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혹은 그 사람의 지각적 또는 표상적(表象的) 발판에 관련시켜서 기억하는 것이다.
알라이다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역,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p.301

6)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서울: 세종출판사, 1997) p.49

3) 옷의 매체로서의 효과

모든 예술은 자신으로부터의 출발이며 끝없는 노고와 자기와의 투쟁을 통하여 탄생되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모든 기억이 잘 조화되고 시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작가의 내면세계가 작품에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

벨(Clive Bell 1881~1961)은 "미학의 모든 체계의 출발점은 특수한 정서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예술이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을 요구하며, 미(美)는 정서적인 요소의 표현이라는 '미적(美的)정서'를 강조하였다.⁷⁾ 사람들은 각자의 미적(美的)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저마다 다른 형태로 표출 하여 왔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옷이라는 소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옷이라는 것을 입게 된다.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 몸에 맞는 옷들을 입게 되며 그것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되고 퇴색되어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옷이라는 소재는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진이나 일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옷은 다양한 표정과 느낌을 가진 소재이지만, 옷이라는 전체적인 형태에 얽매여서, 우리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짜임새와 감각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옷이라는 소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7) 루돌프 아른하임, 『예술 심리학』 下권, 김재은역,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3) p.430

같은 하나에서도 각기 다른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실이 어떤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자연적 소재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가공 처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그리고 그것을 입는 사람의 습관이나 과거 시간의 흔적과 흐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소재보다도 표현 방법이나 변형의 요소가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옷 위에 롤러로 잉크 칠을 하여 바탕재에 직접 찍어 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촉감과 다양한 표정들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표현된 옷의 질감과 표현들은 전체적으로는 단조로운 형태의 큰 틀 속에서 무수한 실의 얽힘과 바느질 땀의 모양, 그리고 뜯어진 실밥과 빠져나간 울, 패턴의 무늬 등과 같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작품 속에서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요소로 작용한다. 소재의 감각적이고 다양한 요소의 섬세한 표현은 많은 이야기꺼리를 제공하여 작품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조형면에 있어서 중요한 미적(美的)요소로 작용하고 생각한다.

2. 표현 내용

1) 옷의 부분적인 형태(形態)의 의미

형(形)이란 그것을 다른 영역과 또는 그것의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계선에 의하여 한정된 공간이며 형태의 윤곽이라고도 한다.⁸⁾

회화에 있어서의 형(形)은 객관적이고, 구상적인 형태이거나 또는 자유분방한 많은 것을 요약해 주기도 하며, 보는 사람의 상상에 의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아를랑(Marcel Arlan. 1899-1989)은 "조형적(造形的) 공간이란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의 정서와 구상력에 의해 재창조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작가는 대상을 어떻게 변형시켜 미적(美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예술가 본인의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 예술가는 형태를 자기 목적에 필요한 만큼 다룰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예술가는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순수한 '자기 언어'와 무의식 속의 '상징적 요소'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품세계에 몰입할 때, 비로소 예술로서의 참된 가치는 형성되는 것이다. 감성적으로 지각(知覺)된 사물은 보다 본래적인 풍요로움과 매력, 형태와 동세(動勢)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인간 정신을

8) 프랭크 R 치섬, 제인하트 치섬, 세릴 할러 오웬스,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오병권역, (서울 이대출판부, 1994) p.48

더욱 자유롭게 하며, 그것을 주관화시키고 입상화(入賞) 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화면의 순수한 감성 표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물에 대한 감정을 작가는 심상(心象)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고 작가 고유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옷에 대한 과거 기억은 현재와는 달리 불완전하고 잊혀진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속이 환하게 다 비치는 투명한 유리가 아닌 형체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투명적인 유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재를 이용함에 있어 과거의 불완전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적절히 표현하고자, 옷의 완전한 형상의 이미지가 아닌 뜯어진 실밥, 늘어진 옷자락, 얼룩 등의 특정한 부분들만을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이런 부분들의 형태는 본인의 미적(美的) 정서에 기반을 두고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강하게 인식되어진 부분만을 오려서 만들어진 것으로, 불완전하고 멈춰진 과거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본인의 경험과 추억들이 뒤섞여 있음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감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옷에 대한 각자의 기억으로 빠져들게 하는 하나의 모티브로 삼고자 하였다.

2) 색조(色調)와 바탕재의 효과

본인은 다양한 상황과 많은 이야기를 작품에서 설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가 표현됨으로서 짐에 있어 단조롭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색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 이미지와 배경은 상호 대비적으로 처리된다.

본인은 옷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데 의미를 두고, 밝고 다양한 색의 사용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을 표현하기 보다는, 과거의 아련한 이미지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기억 속에서만 반짝이고 있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경험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무채색 계열인 검은색과 은색의 외적 대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1>과 같이 검은색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은색으로 찍혀진 옷 형태에서 풍겨져 나오는 느낌은, 명도 대비를 통한 감각적인 표현이며 기억 한 편에서 존재하고 지각(知覺)되어 온,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신비하고 아련한 추억의 상징들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와 대조적인 색채로 표현된 <작품2>에서 보여 지는 하얀색 반투명 비닐 위에 검은색으로 찍혀진 옷의 상징적인 부분은 시간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중첩효과(Overlap)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배경과 이미지의 상반된 색조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되는 요소로 표현한 것으로 동화 될 수 없는 시·공간적 거리를 작품에서 암시하고 있다. 배경은 구체적인 묘사 없이 질감과 소재와의 명도 대비로만 단순하게 처리 되었는데, 이는 서술적 구도를 배제하여 소재의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화면에서 강조하여, 그 세밀함이 사실적 형상의 의미를 뛰어 넘는 실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색조가 작품의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완전한 작품을 위해서는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또 다른 표현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바탕 재를 들 수 있겠다.

본인은 평이한 판화지 보다는, 감각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화면을 생성하기 위하여 독특한 바탕 재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에 맞는 바탕 재로써 반투명 비닐 소재를 선택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반투명 비닐은 섬세한 홈들이 있어 표면이 거칠고 사물이 반만 투영되는 반투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옷이라는 소재를 찍어내는 데 있어 훌륭한 바탕재가 되었다. 반투명 비닐은 옷의 실밥과 촉감, 짜여진 실의 형태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과 옷의 특수한 질감까지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도 옷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촉각적 시각화(視覺化)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투명 비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광택에서 오는 사진 인화지와 유사한 색감과 촉감이다. 또한 판화 롤러의 속성으로 인하여 보다 그 재질감이 실재감 보다 강하게 표현되어짐으로써 이것은 사진과 같은 느낌을 표현해 줌으로써 본인이 화면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옷의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본인이 선택한 바탕 재는 비닐의 한 종류

로, 고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뜨거운 난로 옆과 같은 높은 온도에서는 작품의 손상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난점이다. 이런 바탕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았고, 바탕재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3)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같은 소재와 생각을 가진 작품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각양각태(各樣各態)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작가의 감성과 독창적인 표현방법에 의해서이다.

본인은 옷을 그대로 가져와 이용하기 보다는 옷의 기록적인 의미와 멈춰진 과거의 시간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판화기법을 이용 하였다.

작업 초기에는 옷이라는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 동판을 이용한 에칭(Etching)기법을 사용하였다. 동판 위에 기억을 회상시키는 옷의 특징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섬세하게 나타내고자, 니들을 이용한 선으로 표현하였다. 에칭(Etching)기법으로 표현되어진 옷의 이미지는 판으로 옮겨져 부식됨으로써 사실적 의미의 옷에서 오는 질감과 형태를 나타내 주기 보다는, 동판이 부식되고 굵혀지면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한 것이

외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소재의 의미 외에 다른 외부 요소의 부가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손으로 그리거나 판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아닌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면서 본인이 옷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시간의 흐름을 전사 할 수 있는 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옷의 특정한 부분들을 판으로 보고 찍고자 하는 바탕재에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꼴라그래프 기법을 사용하였다.

경험을 통해 인식된 옷의 특정한 부분위에 잉크 칠을 한 뒤, 프레스기를 이용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탕재 위에 찍어내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옷의 소재의 특성상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잉크가 고루 묻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찍고자 하는 옷 위에 물풀이나 본드 종류를 칠하여 형태를 고정하고 그 위에 롤러를 이용하여 잉크 칠을 하고 찍어 내었다. 그러나 찍혀진 반투명 비닐에는 옷의 질감표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 칠해진 본드로 인해 옷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촉감을 잃어버리고, 고착물질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실제 옷이라는 소재에서 주는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가공되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옷의 인위적인 표현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옷 위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옷의 섬세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잉크가 옷에 묻치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은분가루를 찍어 점성을 강하게 만든 뒤, 롤러를 이용하여 옷 위에 잉크 칠을 얇게 하고 반투명 비닐에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옷의 질감을 섬세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자 본인이 의도 한 것보다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표현 방법은 얇은 옷은 가볍고 거친 느낌을 표현 해주었고, 스웨터와 같은 두꺼운 옷들에서는 폭신하고 따뜻한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입체가 아닌 평면 안에서 촉감의 시각화를 표현 해 낼 수 있는 것은 롤러, 그리고 찍힌다는 기법에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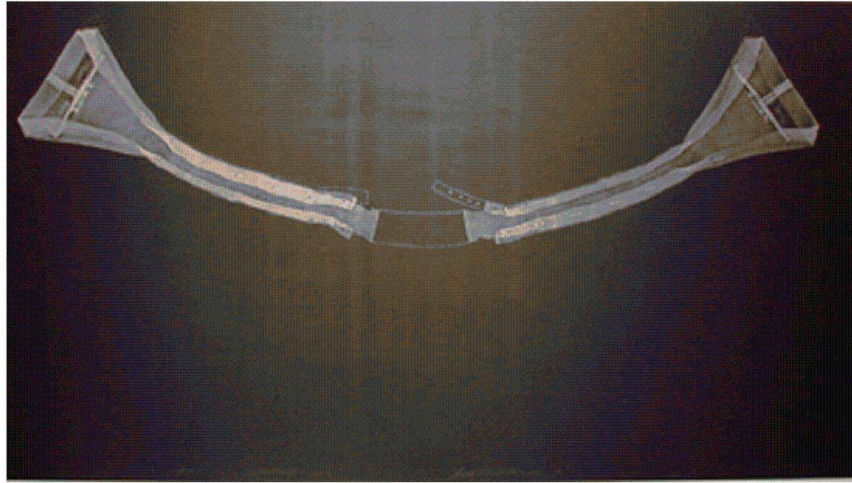
이렇게 콜라그래프 기법은 사물에 직접 롤러로 잉크 칠을 하여 사물을 찍어 내는 확장된 판화의 기법으로, 소재의 돌출된 미세한 표면 위에 묻은 잉크가 바탕재에 찍혀져 기호적이고 각인되어진 느낌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판이라는 간접 매체를 거치지 않고 소재를 직접 찍어냄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의미 형상 등을 외곡 없이 사실적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정제되어진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기억을 유발해내는 명료하고 단순한 형태로 작품에서 표현되어 과거로 통하는 현재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법은 소재의 활용이 자유롭고 손으로 그린 것 보다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재를 이용하더라도 표면의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방법으로써 소재의 활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활용방법에서도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콜라그래프(collagraph)기법을 이용하여 표현 된 옷 질감의 느낌과 형태는 본인의 작품에서 과거 기억으로 빠져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형상의 기록을 넘어서 현재의 시간에서 다시 각인되어지고 상기 된 본인이 옷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적 기억을 기호화 하고 상징화 하고 있다.

3. 작품분석

작품은 평면작업방식으로 제작 되었다. 나무판 위에 밀바탕이 되는 흰색 또는 검은색 접착 시트지를 붙인 뒤, 그 위에 상호대비적인 색감으로 찍혀진 옷 이미지의 반투명비닐을 덮어씌우고, 팽팽하게 당겨서 나무판에 고정시킨다. 그 위에 옷에 관한 기억의 연상 작용을 유도하고 경험의 흔적을 암시하는 부가적인 표현으로, 연필을 이용한 점선으로 부분드로잉을 하였다.

<작품1>, <작품2>에서 나타나는 배경 색과 이미지 색의 상호 대비적인 처리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상 거리를 나타내 줌으로써, 같은 시·공간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소재를 강조한다. 또한 <작품1>을 대칭적으로 마주보도록 소재를 배치하여 표현한 것은 과거 경험과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재창조 된 것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옷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다. <작품3>에서는 본인의 다양한 옷 이미지들 중에서도 강한 지각으로 다가온 요소들만을 오리고, 다듬어서 표현 하였다. 작고 섬세한 부분들을 똑같은 틀 속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일기장과 같은 기록적인 의미로 표현 하였다. 제목에 기록되어진 날짜의 순서대로 세부적인 작품 설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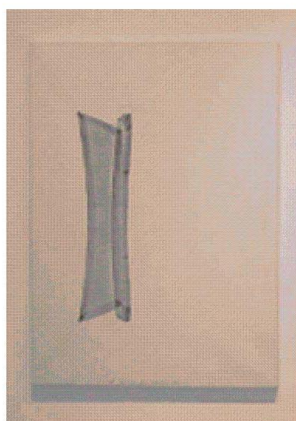
<작품1>“memory 4.23. 2003.”, (160×80cm), collagraph

<작품1> “memory 4.23. 2003.”, colla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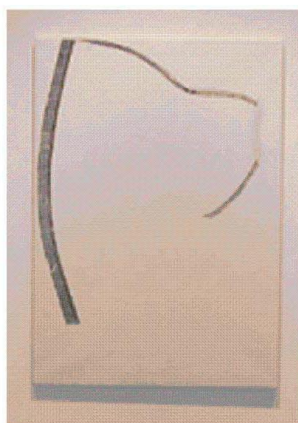
검은 바탕에 옷의 특징적인 부분만이 서로 대칭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옷의 한 부분은 과거의 불완전함을 암시하고 옷이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기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배경과 이미지를 대조적인 색을 이용한 명도차이로 처리함으로써 소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memory 8.23. 2003.” 라는 숫자가 뜻하는 것은 우연한 어느 2003년 8월에 옷장에서 이 옷을 발견하고 옷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기억 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옷에 대한 기억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속에서 빠져나와 현재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일기에 쓰여 있는 날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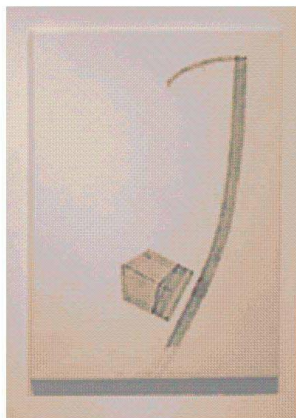
이 옷은 대학교 때 입었던 본인의 옷으로써, 한때는 무척 아끼고 소중히 간직하다가 어느 순간 옷에 물감이 묻은 후로 옷장 깊숙이 넣어 버린 옷 이었다. 현재 그것은 물감이 변색되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얼룩은 대학시절 과제 전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모여 밤샘 작업하던 불 켜진 실기실로 본인을 데려갔다.



<작품2>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작품3>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작품4> “memory 5.20. 2003.”, (50×70cm), collagraph

<작품2> “memory 5.20. 2003.”

<작품3> “memory 5.20. 2003.”

<작품4> “memory 5.20. 2003.”

셔츠의 부분 부분에 대한 기억을 시리즈로 표현하였다. 감각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진 셔츠의 목둘레, 단추 구멍, 주머니, 진동둘레 등의 특징적인 부분들만 선택하여 과거 이야기를 가진 세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옷 위에 직접 잉크 칠을 하여 반투명 비닐에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 체크무늬 패턴까지 자세히 표현되었고, 천이 겹쳐지는 부분과 앞 부분은 진하게 찍혀지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과 뒤쪽부분은 흐리게 표현됨으로써 화면상에서 원근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옷을 구경하다가 맘에 들어서 구입한 옷 이었다. 하지만 몇 번 입지도 않은 채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린 옷에 대한 추억과 혼합하여, 소재에 직접 잉크 칠을 하여 프레스기에 찍어내는 풀라그래프라는 판화 기법을 이용하여 소재의 요철이 표현 되어 짐으로써, 각인되어진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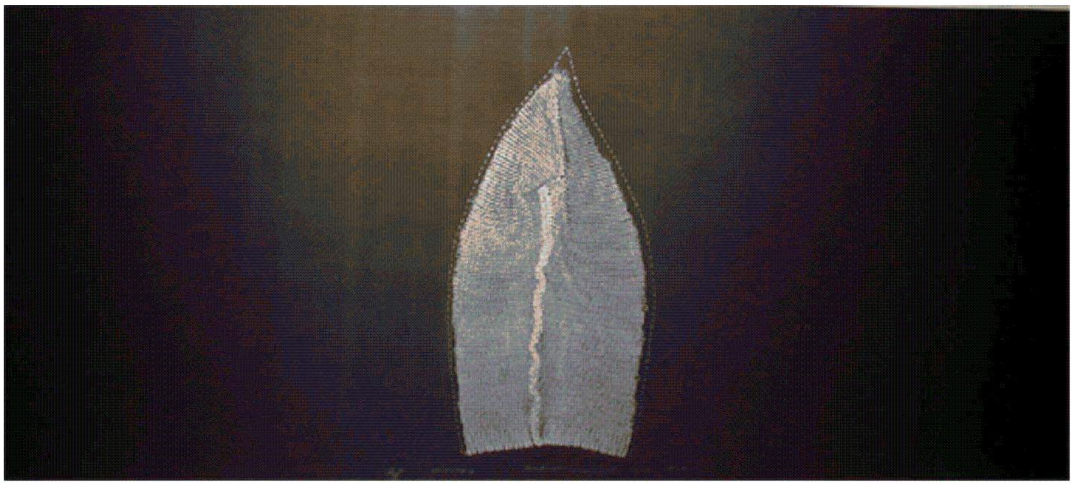
<작품5> “memory 2003.”, (20×20cm×49), collagraph

<작품5> “memory 2003.”

사람들은 어떠한 매개체나 이미지를 통해 과거의 회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미지들은 개인의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특별해지고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진다.

경험을 통해 인식 되어진 옷의 특정한 부분들만을 선택하여 일기장 한 장 한 장을 펼쳐 놓은 것과 같이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플롯 있게 구성하여 배열하였다. 배열 방법에 있어서는 대조적인 색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디스플레이 하였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거리를 암시하기 위함이다.

배열된 작품을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옷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공감하게 하고 감상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작품6> “memory 5.30. 2003.”, (160×80cm), collagraph.

<작품6> “memory 5.30. 2003.”

위 작품의 소재는 대학시절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입었던 스웨터로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가진 추억을 회상하면서 스웨터의 부분적인 이미지를 형상화(形象化)하여 표현 하였다.

스웨터의 옆 이음새 부분만을 오려서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콜라그래피(collagraphy)기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두꺼운 스웨터의 촉감과 짜여진 실의 형태까지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섬세한 표현들은 평소에 무심코 지나 쳤던 소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화면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 중앙에 소재를 배치함으로써 소재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연필을 이용해 점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옷에 대한 기억의 경로를 표시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소재 이외에 드로잉 요소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옷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연상하도록 의도하였다.



<작품7> “memory 7.30. 2003.”, (80×80cm), collagraph

<작품7> “memory 7.30.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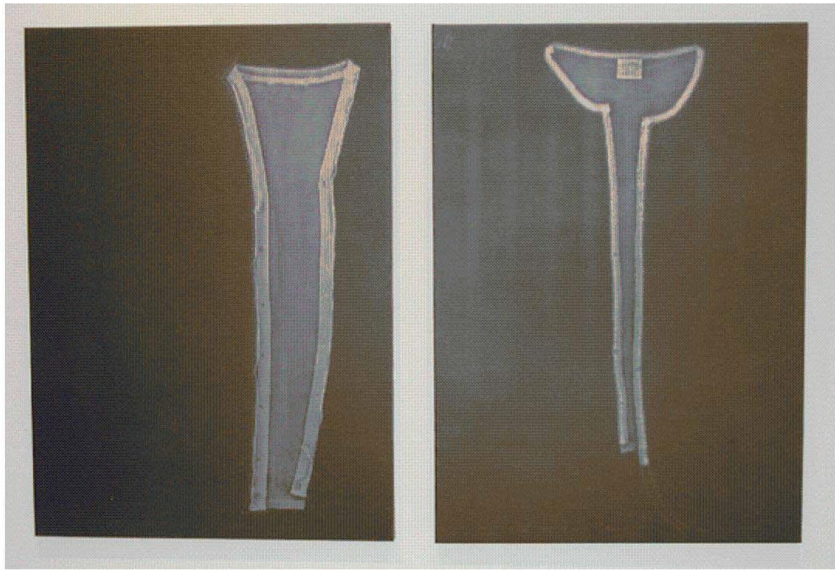
다른 작품에서는 옷의 특정한 부분만을 가위로 오려서 나타내었지만, 이 작품은 전체적인 옷의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 한 작품이다.

여름 원피스 윗부분에 잉크 칠을 하여 반투명 비닐에 찍어 내었다. 얇은 마소재로 이루어진 원피스는 작품에서도 보여지 듯 거칠고 얇은 질감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한 여름 무더위 속의 경험을 기억하는 데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한다.

잉크 칠 한 앞부분은 진한 검정으로 찍혀지고 뒷부분은 흐리게 표현됨으로써 옷의 앞을 보고 있지만, 옷의 안쪽 형태까지 짐작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 마치 투명인간이 옷을 입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하얀색 배경위에 검정색으로 표현되어진 이미지와의 명도대비는 평면에서 3차원 공간을 연상시키도록 의도하였다.



<작품8> “memory 8.8. 2003.”, (20×20cm), collagraph



<작품9> “memory 7.14. 2003.”, (50×70cm), collagraph

<작품8> “memory 8.8. 2003.”

<작품9> “memory 7.14. 2003.”

옷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인식된 부분들을 변형하여 나타내었다. 본인의 경험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풍부하게 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옷에 잉크 칠을 하여 직접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해 사실적으로 화면에 표현된 바느질 모양과 자연스러운 구김의 표현, 실의 방향들이 강조되어 작품에 나타남으로써,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옷이라는 소재의 특징과 감각적인 요소를 세밀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2>와 비교해 <작품6>에서 표현된 옷은 기존에 나오는 셔츠의 소재로 전체적인 형태가 같더라도 그것이 가진 특성과 모양, 구성된 섬유조직에 따라 화면에서 표현되어지는 차이가 있음을 비교 할 수 있다.



<작품10> “memory 10.09. 2003.”, (30×40cm), collagraph.

<작품10> “memory 10.09. 2003.”

옷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은밀한 속옷을 발견 하였다.
얼마나 나의 머릿속 세월에서 잊혀져 있었던 것일까? 꾸깃꾸깃 구겨진
구김과 여기저기 헤어진 부분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브라운 색감의 반투명비닐과 은색 색감으로 찍혀진 오브제와의 명도
대비를 이용하여 소재를 강조하고자 하고 옷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가는 통로를 제공 하고자 한다.



<작품11> “memory 2003.”, collagraph.

Ⅲ. 결 론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소재로 자신의 심리적(心理的)상태를 표현 요소로 잠재된 의식과 떠오르는 기억의 이미지를 통해 과거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미지를 통해 경험하게 된 기억 회상의 이론적 배경으로 프로이드의 기억에 관한 글을 참고하였고, 옷이 가지고 있는 과거 이야기들을 일기와 같이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기억으로 통하는 표현매체로 옷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소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소재를 변형하고 판화 기법을 이용해 바탕재에 찍어냄으로써 과거시점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경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콜라그래프(collagraph)기법을 이용하여 소재의 특수한 재질감을 사실적이고 즉물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작품에 기호적이고 각인되어진 이미지로 표현됨으로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작품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조형적(造形的)으로는 경험을 통해 특별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진 부분만을 선택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도록 하였으며, 배경과 이미지의 명도 대비와 독창적인 바탕재의 표현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암시하고, 감상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폭넓은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자문(自問)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동기와 전개 표

현 방법을 규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창작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관한 심리적 상태의 연구, 자연스러운 옷의 표현에 대한 고찰, 열에 의해 변형 될 수 있는 바탕재의 보완점과 판화의 특수한 표현 매체의 기법과 활용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져 있다.

참 고 문 헌

김형효, 『베르그송 철학』, 서울:민음사, 1991.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서울: 세종출판사, 1997.

루돌프 아른 하임, 『예술 심리학 下권』, 김재은 옮김, 서울:이화여대 출판부, 1993.

『미술세계 1998』, 1998, 1월호.

잭스펙터, 『프로이트 예술미학』, 신문수역, 서울:폴빛, 1981.매 이

어 호프, 『문학과 시간의 만남』, 서울:자유사상사, 1995.

알라이디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캘빈S.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안귀여루역, 서울:범우사, 1996.

프랭크R치섬, 제인하트 치섬, 세릴 할러오웬스,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오병권역, 서울:이화여대출판부, 1994.

ABSTRACT

A Study on Pictorial Expression Using Garmen
as the Medium

- Focused on Author's Own Work, Memory -

Kim, hee joun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By expressing one's own spiritual world through experience on the outside, artists show their mental state. As it is, artists recollect the past through subconsciousness and the images of their memories that flash through their mind and they express it with formative factors.

This study referred to Freud's writings on memories for theoretical background of recollection of memories experienced through images and the recollections of author's past

experiences are expressed like a diary.

The reason for selecting garments as medium of expressing that connects to memo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re then stated. by changing the material and arranging them formatively in the works, the time point of past is emphasized and suggested that author's experience is included therein. Also, using collage technique, direct and realistic expressions were attempted.

From the formative aspect, by selecting only a specific parts of garments and creating them into various shapes, it was expressed in a way that it will unfold like a story. the contradicting colors and original matiere expressions suggest the time point of past and they are also intended to stimulate the curiosity of viewers to invoke wide association of ideas.

Through this thesis, I came to have a chance to question self and by defining expression method of motives and development, and I believe that it will be a help in my creations in the future. lastly, there remains the future study assignment of developing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memories, a study on symbolic expression of natural clothes, and what one can do to perfect matiere, which can change its shape by heat.